

우리나라 都邑景觀 變遷過程의 基礎研究(I)

*朴 贊 龍 **金 漢 培

*嶺南大學校 造景學科 教授

**大邱大學校 造景學科 教授

A Basic Study on the Landscape Morphogenesis of Major Local towns
(Do-Eup) in Korea(I)

*Park, Chan Yong **Kim, Han Bai

*Prof.,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

**Prof.,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eagu Univ.

A B S T R A C T

The landscape structure of the both pre-industrial and industrial cities should be influenced to the topographical feature, religious thoughts, political ruling system and history. In the major socio-cultural factors in the pre-industrial townscapes in Korea, the Feng-Shui(poongsu) which is an ancient human settlement organization system based on the "Yin-Yang" principle and "Five Elements" and "Chryaegogong" system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the formation of traditional town scape in Korea.

The landscap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s were basically reorganized through change of "Boundary", "Center" "Direction(path)" and "Domain" which were expressed by distinct traditional townscape in Yi dynasty. The physical shapes, meanings and behaviors of townscape were expressed properly of the intention of the colonization.

As changes to the modern industrial cities, the townscape had been amended landscape element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to an ideology of rebirth nation.

Also as changes to the modern industrial cities, "Boundary", "Center", and "Domain" spreaded into the suburbs by functionalism and these were expressed an incoherent value system which were the advancement of growth, pursuit policies as well as an advancement of science techniques.

· 1987年 9月 14日 접수된 논문임

· 1987年 韓國造景學會 學術發表會 發表論文

I. 序 論

1. 研究背景과 目的

現代 韓國都市景觀의 歷史性 및 固有性不在에 대한 문제는 環境計劃 相關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언급되어온 중요한 主題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의 포괄적인 원인은 前近代에서 近代로 이르는 過渡的 時期에 있어서 타율적인 統治社會 및 文化構造의 變革에 있다고 認識되어져 왔다. 즉, 우리나라 都市의 대부분은 그 起源이 뚜렷한 것만 골라 보아도 1500~2000年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古都邑이라 할 수 있지만(孫禎睦, 1977: 19) 開港과 植民地時代, 解放, 6. 25, 1~5共和國로 이어지는 近代都市化過程을 거치는 동안 統治體制에 연유된 中央文化의 압박으로 전국 의 도시들은 全편일률적인 大都市 縮小指向의 모습을 갖게된 것이 사실이다. 다시말해 植民地 統治政策에 의한 固有都邑景觀의 意圖의 파괴, 現代共和國體制에 있어서 기능우선, 성장지상주의적 무분별한 都市開發에 의한 場所의 固有性的의 파괴가 문제의 기본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崔秉瑄, 1986: 57).

그러나 80年代初에 이르러 그동안의 中央集權의인 都市開發과 都市行政의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地方自治制' 政策具現의 가능성은 종래 中央의 綜合計劃에 의한 地方民의 受動的 開發參與方式을 地方 또는 地方都市自體의 個別的 狀況과 歷史에 맞는 能動的 開發計劃과 執行으로 전환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權泰竣, 1984: 142) 韓國都市들의 景觀의 固有性 수복에의 기대를 보다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70年代 世界都市計劃界에 形成된 새로운 흐름 즉, 60年代의 機能主義와 成長至上主義에 대한 懷疑는 自然保全과 더불어 歷史環境의 保全을 都市開發의 새로운 主안점으로 추가시키게 되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保存對象과 歷史環境의 時間的 基準도 점차 짧아지고 있어 심지어는 30~40年前的의 것도 保全되어야 한다는 認識(Kevin Lynch, 1981: 221-258)등이 종래의 開發方式에 대한 反省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가 우리의 都市景觀속에서 歷史的 時間性과 意味를 찾아내는 것은 個性이 없는 우리의 都市에 歷史的 正統性과 地域的 固有성을 부여하기 위한 첫단계의 작업이 될 수 있으며, 그 方法上 단절된 한 時期의 景觀現象에 대한 진단보다는 연속된 時間속에서의 景觀變遷過程을 그 原因과 結果의 兩側面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러한 觀點을 文化地理學에서 '地理學的 形態發展論(Geographical Morphology, Morphogenesis or Metamorphosis)' 이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地理的 形態로서 都市, 마을의 形成過程을 生物學的 形態論(Morphology)의 概念을 원용하여 그의 發生(Origin), 成長(Growth), 機能(Function)의 進化的 發展過程을 추적하는 것이다.(Whitehand, 1981: 1-8 /Smailes, 1966: 80).

궁극적으로 이러한 都市景觀의 通時的 變遷過程(Morphological process)에 특히 관심을 두어, 社會體制의 변화에 따르는 '環境的 價値觀' 과 '意志'의 변화가 어떻게 景觀에 表現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거기서 어떠한 傾向性(Inclination)을 읽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나라 都市의 固有性 表現에 어떠한 制限點과 可能性을 갖는가 하는 것을 研究하는 것은 序頭에 제기한 문제해결의 本質적인 接近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研究는 그 主題의 性格에 의해 예상되는 研究의 分量으로 보아, 연속적인 후속 연구에 의하여야 될 것이나, 本研究에 있어서는 후속되어야 할 실제 都邑景觀變遷過程에 대한 實證的 研究에 앞서 研究對象의 空間的 時間的 範圍限定, 全 研究過程에 準據할 수 있는 적절한 分析體系의 設定 및 예비적 知識의 整理, 一般論的 假說의 設定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2. 研究對象의 空間的 · 時間的 範圍

朝鮮朝 地方行政都市에 있어서의 都市位階는 크게 보아 府 → 牧 → 大都護府 → 都護府 → 郡, 縣의 邑 등으로 나뉘어지며 적어도 大都護府 이상은 政治的 機能으로 보아 都市的 機能에 컸다고 보아진다(姜大玄, 1975: 72-73).

그러므로 本 論文의 題材中的 '都邑'은 그 用語上 首都 漢城府를 제외한 都市의인 邑 즉 道 監營所在地에 준하는 보다 格이 높은 '府' '牧' 정도의 地域中心 邑을 의미하며 이는 下位의 邑인 郡, 縣廳舍所在地의 邑들과 구분하여 편의상 부르는 것으로 유사한 性格의 研究文獻에서도 무리없이 사용되는 用語이기에 本稿에서도 그대로 使用키로 한다.

附言하면, 本 研究의 空間的 對象인 都邑 즉, 朝鮮朝時代의 府 · 牧級의 地方都市들은 行政位階上 國都(首都)와 地方郡, 縣의 統治據點으로서의 小분과는 中間的 位階에 해당하는 都市로 그 상당수가 朝鮮時代 各道의 道監營 내지 道軍事指揮府가 位置해 있던 곳으로서 日帝植民地時代와 現代共和國時代를 거치면서도

계속 地方行政의 據點役割을 해온 韓國都市의 一般的 代表性을 인정할 수 있는 中規模의 都市들이다.

本研究에서 다루고자 하는 時間的 範圍는 歷史的 各分期로서 傳統의 都市景觀의 特性이 현저하고 近·現代의 統治 및 社會構造와는 本質的으로 상이한 郡縣制의 朝鮮王朝時代와 그후 韓國近代化의 기점으로 서 東學의 대두와 유럽諸國과의 通商 및 開港期인 開化期를 포함하여 統治 및 社會構造의 本質的 變化가 수반된 日帝強點時代와 解放後 市民共和國時代로 하고자 한다.

이들 時代의 各分期는 政治體制의 根本的 變動과 일치하면서 都市史에 있어서 二大區 즉 前産業都市(Pre-Industrial city)와 産業都市(Industrial city)의 形態의 變遷을 볼 수 있는 最小限의 時間적 範圍이기도 하다.

朝鮮王朝時 이러한 都邑들의 가장 두드러진 形態上的 特長은 前産業社會時代 世界都市들의 一般的 特性과도 같이 대부분 城郭에 둘러 外觀上 두드러지게 나타난 閉鎖形 “城廓都市(Walled town)”라는데 있었으며, 이는 그 후의 日帝에 의한 타율적인 産業都市化를 時點으로 城壁의 철거와 더불어 점차 現代都市의 “開放都市(Opened City, Liberal City)” 형태의 도시화 산으로 이어져 갔다.

이러한 都市景觀의 通時的(Diachronic) 관찰과 解釋에는 政治, 經濟, 宗教, 軍事, 自然 등의 여러변수를 고려해야하나, 일반적으로 前産業都市에는 크게 두가지 변수 즉, 宇宙觀 및 宗教觀과 관련된 信仰體系와 統治體系에서 연유된 ‘社會體系’가 주요한 관찰변수가 된다고(Rapoport, 1979: 45-71) 볼 수 있으며, 現代以後의 産業都市에서는 統治體系에 의한 “社會的 關係”가 그 변모된 理念과 더불어 지속적인 변수로 作用하나 信仰體系의 변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특히 새롭게 강력하게 등장하는 관찰변수는 역시 “經濟的 목적에 연유된 機能的 秩序”라고 볼 수 있다(Lynch, Ibid: 81-83).

II. 都市景觀 解釋의 概念體系와 使用資料

景觀論은 接近方法上的 차이로 보아 주지하는 바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景觀을 하나의 感覺의 對象 그 自體로서 관찰하는 입장과, 둘째로 景觀을 관찰자의 內面的 思考, 過去의 經驗, 價值體系와의 相互關係 속에서 보고자하는 입장이 그것으로 前者의 경우는 관찰방법상 分析的인 면이 우세하며 景觀을 構成하는 개개의 要素들의 感覺的 特

性을 증시하는 반면, 後者의 경우는 그 觀點이 상대적으로 綜合的이라 할 수 있으며, 개개의 景觀要素들이 組合된 하나의 體系(Pattern) 또는 그것이 認識上에 투영된 觀念的 圖象(Image)에 관심을 두는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前者의 경우를 知覺的(Perceptual)方法, 後者의 경우를 認知的(Cognitive)方法이라고 말하며 특히 後者의 경우는 人文地理學者들의 文化景觀(Cultural Landscape)概念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고 생각된다.

一般的으로 이 두 방향의 觀點은 研究의 目的 또는 研究體制의 空間的 規模에 따라 독립적,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都市景觀과 같이 규모상 五官의 즉각적인 知覺範圍를 벗어나는 題材의 경우 認知的 觀點이 상대적으로 적절하다 할 것이다.(任勝彬, 1986: 45-46).

이러한 認知的 觀點에 의한 都市景觀의 解釋에는 주지하는바와 같이 心理學, 社會學, 人類學, 地理學 등 많은 社會學的 知識과 理論이 원용된 다양한 景觀分析體系가 있어 왔으나, 本主題의 내용상 複合性을 보다 단순명료한 구조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研究結果를 정리하여, 몇가지 포괄적 構成要素를 추출하여, 분석을 위한 概念들 (Conceptual Framework)을 設定하는 작업이 요구되어진다.

都市景觀의 構成要素는 크게 物理的要素와 非物理的要素로 나눌 수 있다. 즉, 都市景觀은 物理的인 實體로서 나타나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社會的 機能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意味는 非物理的 特徵을 지닌다(李揆穆, 1984: 28). 이중에서도 物理的要素는 景觀의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知覺的 근거로서의 상대적 중요성이 인정되며 環境認知的 연구태도에서도 연구의 결과물들은 이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N. Schulz, K. Lynch, Tuan, J. B. Jackson 등의 연구결과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物理的 景觀要素들은 그 表現과 意味의 多樣性에도 불구하고 ‘中心’(Center; Node, Core, Central District) ‘境界’(Boundary; Edge Periphery, Threshold), ‘方向’(Direction; 水平의 方向으로서의 path, 垂直의 方向으로서의 Landmark), ‘領域’(Domain: Territory, Quarter, Area, District)등으로 집약된다(Lynch, 1960/Schulz/Jackson/Tuan). 즉, 하나의 場所는 求心的 要素로서의 ‘中心’과 遠心的 要素로서의 ‘境界’에 의해서 形態지위지며 결과적으로 이는 環境心理學의 二元對立項의 樣式인 ‘內部와 外部’, ‘圖(Figure)와 地(Ground)’의 관계를 성립시켰다(Schulz·김광한역: 53-59).

이 중 ‘中心’의 概念은 사실상 對象地域의 규모에

따라 많은 개념적 적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세계의 宇宙를 대상으로 할 때 中心은 ‘祖國’이 될 수도 있으며(Tuan Yi-Fu, 1974 : 38), 地域을 대상으로 할 때는 都市가 中心이 될 수도 있고, 都市를 對象으로 할 때는 ‘都心’이, 자기의 마을을 對象으로 할 때는 ‘住區센터’ 또는 ‘집(Home)’이 中心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本論文의 대상은 都市的 規模에 해당 되므로 그 ‘中心’을 주로 都市內의 求心的인 公共의 空間(Communal space)이자 行爲의 中心 즉, 都心이며, 그외의 遠心的 성격의 비교적 私의 空間(Personal space)들은 諸領域(Districts)에 속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Schulz · Ibid : 48-49).

‘境界’는 많은 環境心理 相關문헌에서 Territory의 概念과 함께 環境認識의 本質的인 要素로 간주되어 오기는 했으나, 그의 구체적인 性質, 構造, 構成要素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많지않았다. 다만 C. Alexander는 세포막의 예를 들어 境界 그 자체가 하나의 ‘有機的 實體’(Organic Entity)’ 또는 ‘場所’로서의 性格을 가지며, 이는 隔離의 性格 뿐 아니라 通過를 위한 關門(Gateway)적 性格 또는 公共行爲의 場所(Public Meeting Grounds)로서의 性格을 띠었다고 했다(C. Alexander, 1972 : 87).

또한 構造主義 人類學者 E. Leach는 空間에서의 境界를 時間에서의 境界인 通過祭儀(Rites of Passage)와 비교하여 自然的으로 連續된 場에 人爲的인 境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境界의 指標(Marker)는 內部的인 性質과 異質的인 것들 즉, Taboo와 相關된 것 등의 場所가 된다고 얘기 했다(E. Leach, 1976 : 3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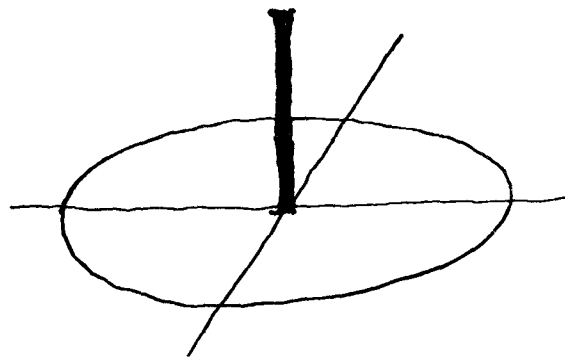
즉 本研究에서 고찰하고자하는 都市景觀에 있어서의 境界(Boundary)의 概念은 K. Lynch의 Edge가 갖는 線的인 隔離要素 뿐 아니라, 內部的와 異質的인 性格을 갖는 物理的인 要素의 配置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다」 都市內의 領域과 「보다」 都市外의 性格을 區分짓는 役割을 하는 “場所的 實在”라고 한정짓기도 한다.

‘方向’ 또는 ‘方位’는 一般的으로 ‘通路’에 의해서 形成化된다고 볼 수 있는데, 前, 後, 左, 右 東 西 南 北 등 基本的인 水平的인 方位體系는 人間의 體位와 自然現象(주로 日出과 日沒)을 근거로 하고, 上, 下의 수직적 方向성은 人間과 動物의 場과의 關係에 기초를 둔 區分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모두 世界軸(Axis Mundi)과의 關係에서 “中心과 긴밀히 結合되어 있으며, 수직방향은 초현실적인 곳으로의 方向을 意味하고 水平的인 方向은 人間의 具體적인 行爲世界를 意味하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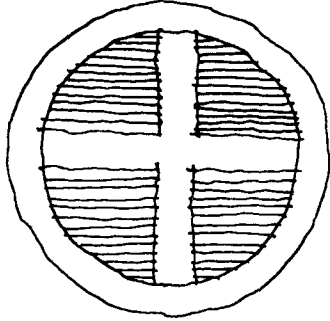
로서 4개의 基本的인 水平方向은 4개의 基本的인 ‘領域(Quater Domain)’을 形成한다고 Schulz는 Eliade의 比較宗敎學的인 假說을 인용 說明하고 있으며, Tuan은 이러한 基本的인 方位體系와 이에 의해 形成되는 諸領域을 과거 현재 미래의 時間概念과 聖俗의 위계적 가치체계를 반영하기도 한다고 말한다(Schulz, Ibid : 50-53, Tuan, Ibid : 34-39)

이러한 領域의 논리를 진전시키면 中心도 하나의 場所 또는 領域이 될 수 있으며 보다 未構造化된 領域에 대하여 보다 構造化된 中心은 ‘地’와 ‘圖’의 關係를 成立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同心圓化된 中心과 領域사이 또는 各 領域과 領域사이의 獨自性을 成立시키는 方法은 通路나 Edge 등의 線的인 境界要素에 의해 區分짓는 경우와 異質的인 物理要素들의 配置패턴을 통해 區分짓는 경우도 있으며, 住居 商業과 같이 人間의 特定活動에 의한 Texture로 表現되기도 하며, 세계도처의 都市에서 볼 수 있는 East End, West End 와 같이 社會的인 조건에 따른 意味에 의해서 區分되기도 한다 (Schulz, Ibid : 5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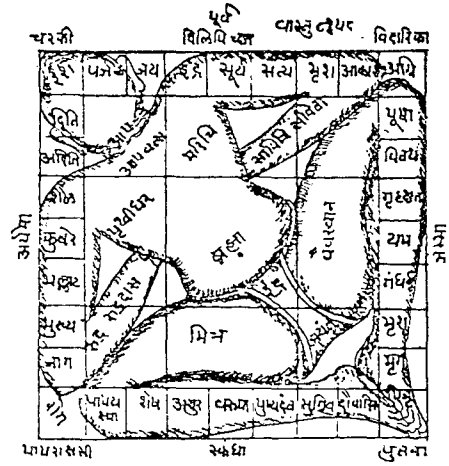
上記와 같은 都市景觀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物理的인 要素들과 구체적인 都市形態는 初期에 있어서의 그 境界(성벽)의 形態에 의한 ‘圓形’의 形態에서 시작하여 ‘方形’의 形態로 발전하였으며, 十字形의 通路의 中心에는 垂直的인 象徴物로서의 ‘尖塔’과 規模的인 象徴物로서의 ‘Giant(巨石 또는 象徴的인 建築物)’들이 추가되어 都市景觀에 있어서 G. Jung 등이 얘기한 二元的인 構造의 象徴的原型(Archetype of Binary)을 이루며 이는 集團無意識에 있어서의 自我(Ego)의 표현으로 세계종교에 등장하는 根源的인 圖式으로서의 ‘Mundala’의 形態와 일치하기도 한다. (圖 : 1, 2, 3 참조) (Jellicoe, 1970 : 57/Aniela Jaffe (설명환역) 219-228/李揆穆, 1987 : 219-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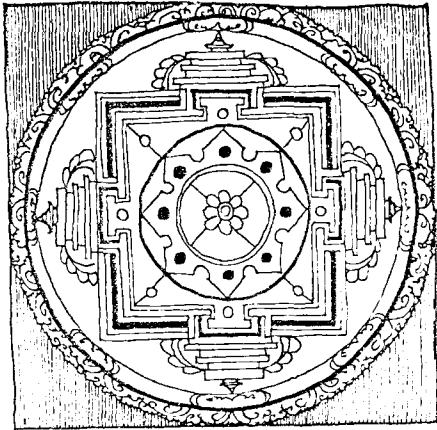
〈圖1〉 실존공간의 기본적 모델. N. Schulz : (1977 : 번역판) p. 52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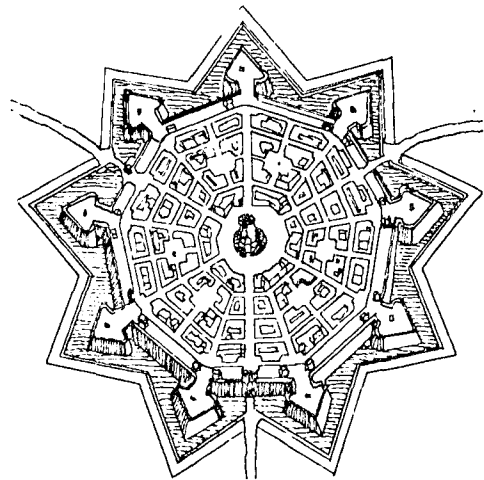
<圖2> 이집트 상형문자의 도시만다라. 이규목, 1987 ; 26.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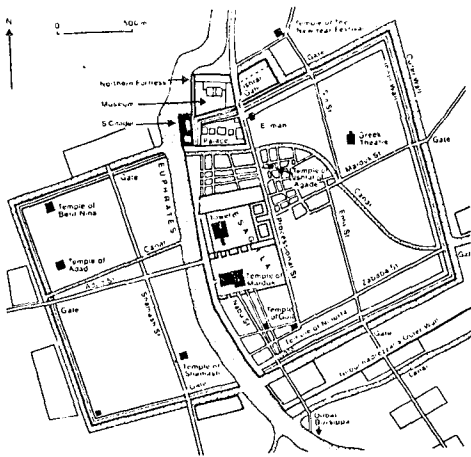
○고대인도의 도시조성 Mandala



<圖3> 인도만다라 (자료 : Johnston, 1983 : 9)



○Renaissance 시대 유럽의 전형적 理想都市모델



○고대 Babylon의 도시구조



○고대인도의 나선형 도시구조

(이상, Lynch, 1981 : 10, 76, 77,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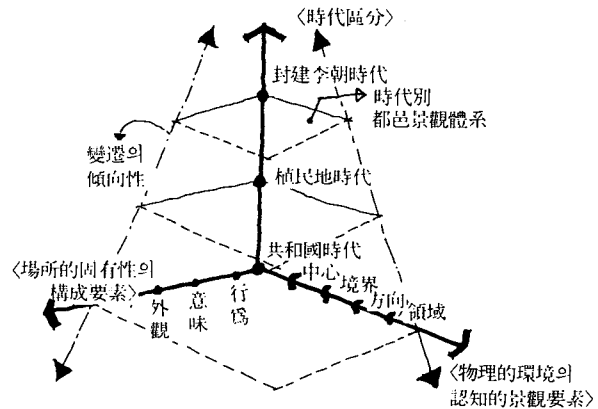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위에서 제기된 都市景觀의 4大 物理的 要素 즉 中心, 境界, 方向, 領域은 어떤의미에서는 Lynch가 말하는 都市이미지의 五要素(Landmark, Path, Node, Edge, District)와 성격상 많은 부분이 중첩 혼동되기도 하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 Lynch의 경우 그의 五大이미지 요소라는 것은 現在都市의 Legibility를 구성하는 주요한 視覺的要素로 住民의 認識圖(Mental map)의 통계적 처리에 의한 實證的 結果值로서 분류해 낸 것인 반면 본 分析體系의 景觀要素들은 人類의 定住地 내지 都市文明史에 通時的으로 內在해 있는 集團的 自我(Ego)의 表象(Representation)으로서 原型構造(Archetypal Structure)를 이루고 있는 基本요소들로서 前者의 체계는 경험적 관찰에 의한 귀납적 사실요소 성격이 짙은 반면, 後者의 체계는 연역적 추측에 의한 觀念的(혹은 實存的) 推想體系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兩者의 各要素들을 1:1 대응관계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즉 '中心'(Center)은 Landmark 및 Node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포괄적 의미에서는 이러한 Node를 포함하고 있는 보다 高密度·構造化된 District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物理的 形態 이전에 위치적 맥락(Locational context) 및 그에 부과되는 意味的 比重에 의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境界'의 경우도 보다 都市內의인 空間과 보다 都市外의(밀도, 발달단계, 성격상) 空間으로 區分짓는 境界의 物理的 指標(Markers of Boundary) 또는 關門의 指標(Markers of Threshold)로서의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어떤 관점에서는 '境界'는 前者에 있어서의 Edge 뿐만아니라 特定位置의 Landmark, Node, District 까지도 경우에 따라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 '方向(Direction)'은 주로 path와 개념상 거의 일치하는데 Lynch의 path가 관찰자의 主利用 經路이자 視覺的 經驗의 通路로서 규정되는 반면 '方向'은 그 用語가 그러하듯 住民들의 心理的 定住와 各 方向의 時代的 價值觀을 연결시키는 根源的 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의 視覺的 方向性을 표현하는 Landmark도 方向의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領域' 또한 District가 特徵的 街區를 주로 지칭한다고 볼 때, 領域은 각 街區간의 空間的·社會的 位階를 表現하는 相互位置 關係에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都市景觀의 物理的 4大要素들은 그 要素들 相互간에도 都市自體의 規模의 變化와 관찰자의 觀點에 따라 서로의 위치가 바뀌거나 내포하는 현상

을 보이기도 한다. 즉 中心 自體는 '中心地'로서 하나의 領域을 形成 할 수 있으며, 확장된 大都市에 있어서는 그 市街地(舊邑) 전체가 하나의 '中心'일 수 있고, 大都市의 순환도로는 '方向'보다는 '境界'를 表現한다고 볼 수도 있다.

上記와 같은 物理的 基本要素外에 E. Relph로 대변되는 '場所論的 景觀觀'에서는 社會的 要素인 '意味(Meaning)'와 '行爲(Activity)'가 物理的 要素의 具體的 '外觀(Physical Appearance)'과 結合되었을때, 비로소 '場所의 固有性(Identity of Place, Spirit of place, Genius of place)'을 發現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서 景觀에 있어서의 根源的인 非物理的 要素들을 제시한다. 즉, 人間과 物理的 景觀과의 정신작용에 있어, 過去의 사실과 現在의 狀況에 연유되는 感情, 聯想, 象徵 등의 '意味'와 景觀과 결부된 人間의 社會活動 즉, 產業 및 住居, 文化, 宗教活動 등의 '行爲'가 自然 및 人爲環境의 外觀과 變증법적으로 一致 될 때 環境은 無性格한 '空間(Space)'에서 實存的인 '場所(place)'의 基本性格을 갖는다는 것이다(Relph, 1976 : 44-48)

그 점으로 해서 本 論文으로 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연구에 준거 하고자 하는 基本的인 分析體系와 進行 方法은 '都邑'이라는 地理的 對象에 있어서 上記한 "認知的 景觀의 物理的 構成要素" (中心, 境界, 方向, 領域)로의 時代變化에 따른 "構造的 變遷象"을 밝혀내고, 그 變化의 內在的 要因으로서의 時代別 統治, 社會構造에 근거한 '景觀操作意圖(Intentions in Landscape Manipulation)'를 上記한 "場所性 構成要素(外觀, 意味, 行爲)"들에 의해 通時的으로 說明, 解釋하는 形態를 취하기로 한다(圖-4 참조).



〈圖4〉 分析體系의 圖式

결국 이러한 관점은 分析體系上的 各要素들의 性格이 시사하듯이, 景觀을 보는 視覺에 있어서 感覺的 또는 機能的 觀點보다는, 社會科學的 意思傳達體系로서의 記號와 象徴(Signs and Symbols)으로 보는 觀點이 우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主題의 구체적 연구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實證的 資料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바, 이에는 문헌자료, 도면자료 현지답사와 주민면담에 의한 자료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문헌 자료로서는 기초의 研究成果를 취사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基本的으로는 都市의 歷史에 관련되는 分野의 研究成果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都市地理史(Urban History Morphology)는 都市地理의 現象과 그 변천과정을 現象學的으로 記述한 것으로서 중요하며, 이의 원인과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都市經濟 및 社會構造등의 변천을 記述한 都市社會史(Sociological History of City)와 都市環境의 制度的 規制를 計劃技術 및 理念의 변천을 통해 技術한 都市計劃史(Urban Planning History)의 研究成果를 綜合的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나, 불행하게도 本 研究의 題材는 韓國 都市의 歷史에 관한 研究成果는 위 세 분야 모두 풍부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이는 西區의 都市計劃史領域의 독립이 10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데서 어느정도 당연한 결과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康泓彬, 1986 : 2).

그러므로 문헌에 의한 연구는 上記分野의 제한된 자료의 原資料(Raw Data)로서의 古文獻 및 對象地域의 鄉土史料 그리고 開發主體(해당관청)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開放都市化以後의 各 細分된 時期別 經濟, 社會 및 都市環境開發에 관한 政策決定事項등을 참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외에 보다 實證的인 자료로서 各時代 都市地圖의 比較검토가 필요하다. 現代의 地圖製作方式이 開發되지 않은 朝鮮王朝時代의 地圖는 대부분 실측에 의한 精밀도가 결여된 古地圖들이나, 어떤 면에서 이러한 古地圖는 그時代 사람들의 環境認識이 반영된 認識圖(Mental Map or Cognitive Map)적 性格도 지니고 있어 흥미롭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아직 본격적인 環境變化가 일어나지 않았던 日帝初期(1910년대)의 실측지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양자를 중첩(Over lap)시켰을때, 이로서 都市의 보다 精確한 都市構造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日帝가 市街地計劃에 근거하여 都市空間 構造를 변모시킨 후의 1930년대 以後의 實測地圖와 解放

後의 都市計劃法 제정이후의 開發과 利用狀況을 알 수 있는 1960년대 지도, 그리고 最近의 地圖는 産業化 以後의 都市形態의 변천과정을 比較해 볼 수 있는 具體的 資料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 관광안내도, 시가지안내도 및 관광용 시가지 사진 등도 비록 官에 의해 製作된 것이긴 하나 都市의 public Image와 主要景觀要素등을 보여주는 圖象(Icon)으로서 고려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찰자 자신의 현지답사의 住民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都市認識圖(Cognitive Map)작성등이 上記자료들을 利用한 研究結果에 보다 실증적인 보완자료의 역할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III. 都市景觀體系變化의 一般的인 區分 : 前産業都市와 産業都市의 景觀特性.

人類文明史에 있어 가장 重要한 分岐點의 하나였던 '産業革命(Industrial Revolution)'은 都市景觀 變遷史에 있어서도 같은 비중의 意味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歷史上으로 Renaissance 以前의 近代와 現代를 가르는 分岐점이 되는 18~19C 産業革命의 時期는 生 産수단과 動力에 증기기관을 포함하는 高능률의 기계를 도입시켜 家內手工業을 工場制 手工業으로 바꾸고, 前時代의 重商主義的 經濟體制를 公業조직의 資本主義로 바꾸었으며, 이에따른 市民계급의 성장과 함께 프랑스 대혁명을 필두로 專制主義的 政治體制를 市民의 民主主義로 이행케 하는 歷史的 계기가 되었다(鄭在賞, 金學燁, 1964, : 1). 폐쇄형의 '城廓都市(Walled city)'로 대변되는 산업혁명의 都市들은 화약과 대포의 발달에 의한 城郭의 無用化, 工場制工業의 번성에 의한 도시의 過密化, 철도와 자동차의 등장에 의한 개방적 近郊성예의 요구 등에 기인하여 城壁의 철거를 시작으로 '開放形 都市(open City)'로 바뀌게 되었으며, 新設철도와 자동차도로를 따라 不定形의 星狀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윤정섭, 1984 : 193-228 · 홍경희, 1981 : 61-66).

이는 그 진원지인 서구와 뒤늦게 영향을 받은 동양에 공히 적용되는 通文化的(Cross cultural)인 現象으로 産業革命以前의 前産業化都市와 以後의 産業都市는 자기 機能, 景觀形成에 있어 代表的 이리만치 큰 차이를 보인다. 前産業都市는 宗教, 及 軍事의 防禦機能이 위축되고 積極적 의미의 商業 及 工業 즉 産業資本主義的인 生産과 流通機能이 추가 되었으며, 특히 鐵道와 自動車의 등장은 새로운 尺度의 都市形態를 要求하게 되었다.

前産業都市景觀의 社會·文化的 形成要因中 중요한 것으로서는 封建絶對王朝에 의한 統治體制 및 권위의 物理的 表現이 그 時代의 宗教體系 및 그에 따른 宇宙觀과 結合되어 都市의 外觀에 강하게 나타났는데 반하여, 産業都市景觀에 있어서는 産業革命을 前後 市民革命과 함께 成立한 政治的 民主主義와 經濟的 資本主義 및 合理的인 과학정신이 비권위주의, 機能主義的인 都市景觀을 낳게 하였으며(Lynch, 1981; 81-88), 이는 매스컴과 기동력(Mobility)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으로 흥미한 '國際主義의 樣式'으로 정착하였으나, 또한 都市環境에 있어서 人間性 및 局地性(Locality)의 결핍 등의 문제점들도 낳게 되었다.

1. 前産業都市의 景觀特性

西區의 前産業都市는 주로 中世유럽과 Renaissance 時代의 都市를 말하고, 東洋의 前産業型 都市는 開港 以前의 王朝都市들을 말한다. 中世유럽이나 전통적인 中國, 인도, 기타 지역의 前産業都市들은 都市景觀構造上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홍경희, 1981: 60-61). 우리가 傳統의 文化를 고려할 때 두개의 秩序體系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신성함과 우주관에 관련된 기하학적 질서이고, 둘째는 社會的 관계에 관련된 질서로 이 두 질서는 都市의 文化景觀을 비슷한 諸文化體系에 상호의존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난다.(Rapoport: 71). 즉 前産業都市들은 그 景觀을 지배하던 '宗教的 秩序'에 의해 대부분이 우주와 신의 신비한 모형의 形態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는 그 時代의 상류계층 즉, 왕, 승려, 봉건제후들의 권위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Lynch, 1981: 73-74).

境界(Boundary)로서의 城壁에 의해 形成되는 前産業都市 등의 形態는 一般的으로 初期에는 圓形, 後期에는 正方形의 形態가 지배적이었으며, 그의 物理的 中央에는 집권자의 궁궐, 사원, 신에게 바쳐진 기념비가 위치하였다.(설영환: 224-225). 이들은 거의 全時代, 全地域을 거쳐서 中心 또는 上方의 강조와 四方向의 강조를 中心施設의 配置와 道路의 形態로서 表現했는데, Tuan에 의하면 이는 人間이 世界와 '宇宙, 그리고 自己自身을 結合하는 두가지 方式 즉, 人間이 '宇宙의 水平的, 方位體系와 垂直의 軸의 中心'이라는 '觀念(Anthropocentrism)'에 연유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하나 '인간의 身體가 '宇宙의 축소판'이라고 생각되는 觀念(Homo Microcosmos)' 즉 일종의 類推信仰(Analogy)의 觀念(Lynch, 1960: 84-85)은 주로 동양권의 도시 즉, 古代인도의 都市形象과 우리나라에서 성행했던 風水觀에 의한 風水局面의 형

태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前産業都市의 大部分의 都市內의 通路는 上記한 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根本的인 四方向의 강조를 두개의 수직적 交軸에 의해 표현하고 나머지의 空間을 格子形의 道路패턴(Grid patten)에 의해 세분했는데, 西區의 경우 中世의 都市는 여기서 약간 벗어난 多重化된 中心들(주로 寺院, 領主의 城廓, 職人組合 建物等)을 불규칙한 도로패턴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는 주로 당시의 권력구조의 多元化(主教, 領主, Guild)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enaissance, Baroque 時代의 都市들은 다시 中世以前의 格子形街路패턴의 부활과 함께 放射形 道路들을 추가 시키고 있는데 이는 수복된 절대왕권의 권위를 視覺的 都市美를 통해서 시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밖에 星形의 計劃都市 形態를 都市形態를 통해 재현하기도 하였다(L. Benevolo, 1980, 1980: 3).

르네상스 時代의 都市景觀은 같은 前産業都市의 景觀이라도 前時代까지의 수직적 우주(Vertical Cosmos)의 概念 즉, 景觀의 神格化로 부터 水平的 景觀(Horizontal Landscape) 즉, 景觀의 人間化로의 概念 전환이라고 얘기되기도 한다(황기원, 1984).

이러한 同時代의 前産業都市 景觀의 "中心, 境界, 方向, 領域" 등 物理的 構造에 나타나는 명료한 통일성(Unity), 질서(order), 정형성(Formality), 중심성(Centrality) 등은 비록 다른 理念的 基조에 의해 수용된 것이기는 하나, 산업혁명 以後의 理想都市(Ideal City)의 概念 그리고 現代美國에서 시작됐던 都市美化 運動(City Beautiful Movement)의 景觀構造方法에서 부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都市의 象徴의 原型構造를 이규목 교수는 世界各 宗教에 공히 나타나는 集團無意識의 原型의 圖象인 Mandala의 地上的 表現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李揆穆, 1987: 25-32).

2. 産業都市의 景觀特性

성곽의 해체와 도시의 평면적 확산으로 부터 시작되는 西區의 産業都市는 크게 初期의 産業都市(Liberal City), 理想都市 및 기존산업도시의 개조 등과 같이 시작하는 中期의 産業都市(Post Liberal city), 最近世의 現代都市(Moden city)로 區分된다(Benevolo, Ibid: 733-896).

初期의 과밀한 産業都市에서 파생되는 都市環境惡化, 특히 도시노동자의 住居環境惡化는 일견 社會主義的 計劃都市로서의 여러 理想都市(Ideal city)案들

과 위성도시적 概念의 “田園都市(Garden City)의 Model를 탄생시켰으나, 이러한 計劃都市의 初期的 모형은 前述한 바와 같이 求心的이며 전형적인 前産業都市의 都市原型으로의 부분적 복귀를 보여주기도 한다.

‘대개의 現代 産業都市는 格子形 道路網의 擴散의 적용과 더불어 「아메바」형의 非整形의인 과대 都市成長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많은 帝國主義的 植民都市의 등장과 더불어 1920년대 부터 시작되는 都市計劃技術(Planning Technique)의 발달은 그 以後의 “都市의 歷史”를 “都市計劃의 歷史”로 바꿀 만큼 都市의 形態發展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 중 특히 세계적으로 一般化 되었던 경향은 “도시는 기계와 같다”는 말로 대변되는 “機能主義(Functionalism)의 國際化였으며, 이러한 科學的, 合理主義的 都市觀은 그 以後 生物科學의 원용으로 都市開發의 時間性까지 計劃의 理念에 포함하는 일종의 線形都市 成長理論인 “成長軸 概念(Metabolism)”으로까지 發展하게 되었다(Lynch 1981/윤정섭, 1984).

都市計劃이란 행위자체가 본질적으로「유토피아」적인 思考方式과 태도를 필요로 했다(李揆穆, 1987: 180)고 볼때, 前産業的 「유토피아」觀이 前述한 바와 같이 “宇宙와 神의 지상적 再現”이었던 것이라고 말한다면, 現代의 機能主義的 「유토피아」觀은 “기계와 같은 都市의 地上的 再現”이었다는 概念上的 차이는 前産業社會와 産業社會 都市景觀의 社會, 文化的 背景에 따르는 理念의 根本的 變換을 容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産業都市에 있어서의 ‘中心’, ‘境界’, ‘方向’, ‘領域’ 등의 物理的 景觀要素들의 變化를 개관해 보기로 하자.

먼저 前産業都市에 있어서의 都市中心이 宗教와 統治權威의 表象으로서의 公共 建物群들이 있는데 반해, 産業資本主義社會의 都市中心은 대규모 商業建物群의 都心(C. B. D)으로 이전 확대되었는데, 이는 前時代 都市의 集合의 象徵 (Collective Symbol)이었던 宗教의 宇宙的 指標가 社會的 指標로 바뀐것을 의미하며, 이는 都市觀의 變化, 즉 聖의 世界에서 人間의 世界로의 “世俗化 過程”이라고도 볼 수 있다(op. cit.: 192-260).

이러한 現代都市의 ‘中心’은 前時代의 單核的 求心性에서, 여러 副都心들의 多核的 中心體制로의 遠心性을 보여 주기도 하고, 또는 方向性있는 線形中心을 보여 주기도 하면서 이들 ‘中心’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마천루들에 의해 이 時代의 대체가치인 經濟와

科學技術을 상징한다. 또한 이러한 中心들과 함께하던 前時代都市의 ‘垂直的 記念碑(Monument)’가 現代都市에서는 水平的 公共環境으로서의 公共公園, 都市의 숲, 수평적 형태의 公共福祉建物등이 됨으로서 專制主義로의 象徵性 記念性的 개념변화를 대변해 주기도 한다(J. B. Jackson, 1970:).

前産業都市에 있어서 城郭으로 대변되었던 명료한 ‘都市境界(Boundary)’는 現代都市에 있어서는 無限定한 都市擴張과 함께 都市의 內部性(Insideness)과 外部性(Outsideness)을 區分짓는 分명한 物理的 境界의 소멸로서 특징지워지거나 分명한 境界要素는 아니더라도, ‘境界의 要素’로 대체되기도 한다. 즉 現代都市의 境界는 都市擴散의 주변부에 形成되는 큰폭의 公한지, 공장지대(Industrial Ribbons), 公園, 환상도로, 공공건물, 철도, 고속도로에 의해 묵시적으로 암시되거나 (Alexander, 1972, 76-78) 또는 田園都市概念에서 부터 提案되어왔던 Green Belt가 보다 직접적인 개념의 境界要素로 認知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러한 現代都市의 ‘境界的’ 要素들은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境界要素로서의 규정은 어려우나, 대개는 都市成長의 단계에 따른 同心圓的 土地利用의 境界를 多重的으로 表現한다고 볼 수 있다.

거의 大部分 前産業都市의 ‘街路網’은 진술한 바와 같이 명확한 東西南北의 方向性을 갖는 直交軸 또는 放射形의 求心的 主軸街路와 이에 따르는 格子形 街路網을 가졌었고, 이러한 格子形 패턴은 産業都市의 格子形 街路網이 絕對主權의 시위, 또는 宇宙의 方向性的 表現이라는 정신적 가치로의 지향을 나타내는 반면, 産業都市의 格子패턴은 經濟性(Subdivision의 용이), 機能性(자동차 교통에의 편리성)등의 물리적 가치를 表現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前時代의 主軸街路網이 ‘中心’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求心的 構造였음에 반하여, 産業都市의 주축가로망은 多核化된 여러都心들을 잇는 循環型 또는 全方向性的 遠心的 構造를 갖는 차이점을 보이며, 이는 産業資本主義的大衆民主主義時代의 平等化, 多樣化한 社會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前産業都市에 있어서의 居住, 기타 土地利用의 ‘領域’ 분포는 그 시대에 강조되었던 各方位 및 高低에 대한 가치관념에 따라 各 社會身分의 位階化된 領域分화構造를 보여 왔으나 (일반적으로 中心, 높은곳, 北쪽이 그 時代의 宇宙觀과 일치되어 선호되어 왔다) (Tuan 1977: 34-50)

産業都市에 있어서는 接近性, 經濟性등의 變化된 街路體系에 의하여, 經濟的 身分構造에 따른 거의 同心

圓의인 居住 領域構造로 바뀌게 되었으며, 惡化된 都市環境問題와 自動車 交通에 힘입어 前時代의 中心地와 외곽지의 가치체계가 정반대로 顛倒되기도 한다.

前産業都市나 現代의 産業都市나 간에 이러한 各領域의 境界는 道路가 주요한 役割을 해온것도 사실이나 前時代의 그것은 領域間的 접촉의 場의 구실도 겸했는데 반해서, 現代의 그것은 自급자족적 Superblock (예; 대청아파트 단지)의 상호분리 장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또한 現代와 같이 大規模화된 各領域은 각기 그 自體의 '境界' 뿐 만 아니라 각기의 下位的의 '中心'들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結論으로 말해서 前産業都市景觀에서의 명료했던 中心, 境界, 方向, 領域의 構造는, 産業都市에서는 보다 多重, 多元化된 中心, 境界, 方向, 領域의 體系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前時代의 보다 單一했던 宇宙觀 및 統治體系의 秩序가 보다 복잡, 다양해진 民主主義 및 資本主義의 理念體系로 바뀌어진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IV. 韓國의 前産業都市와 産業都市景觀形成의 社會·文化的 要因

上記와 같은 通文化的(Cross-cultural)인 前産業都市와 産業都市의 景觀特性은 韓國의 특수한 自然과 宗教思想 統治體制와 歷史 등에 의해 個別的인 地域特性과 變遷過程의 特性을 가질것으로 사료되는데, 朝鮮王朝에 있어 韓國都市가 갖는 韓國前産業都市 景觀形成의 주요한 社會文化的 要因으로서 먼저 易學과 陰陽五行說을 바탕으로한 古代定住 科學體系인 '風水說'과 封建統治 觀點에서의 都市造成 規範인 '周禮考工制'가 가장 重要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먼저 風水說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統一新羅로 부터 高麗, 朝鮮朝時代까지 國都, 都邑의 위치선정 및 景觀計劃에 적용되어(최창조, 1984: 312) 都市의 巨視的, 外的 景觀의 解釋과 利用에 作用했다고 보여지며, '周禮'는 中國의 傳統의 都市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計劃原理로 적용된 것으로 都城의 規模와 形態, 道路의 配置와 幅員, 主要公共施設과 土地利用의 配置를 規定하고 있으며, 이는 機能的 配置라기 보다 신성한 宇宙의 象徴, 또는 古代 占星學의 空間의 일면도 보이는데 (李相求 1984: 59-62, Rapoport: 45-52), 물론 우리나라는 中國과 지형, 기후등의 자연조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그대로 수용치 않았으나, 基本的인 公共施設의 配置 및 土地利用, 井田制의인 道路의 開設등 基本原則을 적용시킴으로서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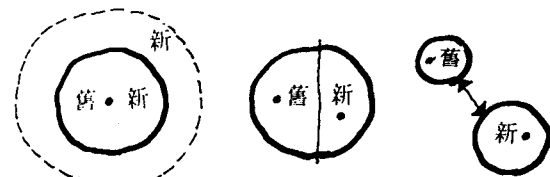
都市의 內的·微視的 景觀構造에 作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前産業都市의 一般的인 兩大 가치체제로서의 '宗教的 價値'와 '統治位階的 價値'는 이 '風水理論'과 '周禮考工制'에 의해 都市景觀에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재해 성장 혁명 등의 社會變革要因을 가장 일반적인 景觀變形要因으로 各各의 原因에 따라 특수한 景觀變化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Lynch, 1980: 28) 우리나라의 경우 現代史로의 轉換期에 속하는 甲午更張, 開港, 韓日合邦, 光復, 6·25, 4·19, 5·16, 등의 歷史的 事件들은 이러한 景觀變形을 야기하는 社會變革要因의 범주에 드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韓日合邦으로 시작되는 植民地時代와 解放以後의 市民共和國時代는 비록 他律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都市들을 前産業都市에서 産業都市의 면모로 變化시키는 歷史的 過程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日帝 植民地時代에 있어서의 全國의 各都市는 병참기지적 植民地都市로서의 都市構造의 變化를 보이는데 그 類型은 대체로 ① 舊市街地의 整備·擴張型(서울, 평양, 전주) ② 新·舊市街地의 分離立地型(부산, 목포등) ③ 新都市型(신의주, 진해등) 등의 모습으로 분류 할수 있다(崔秉瑄; 54)〈圖 5참조〉.

이중, 本 研究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①의 類型 즉, 朝鮮王朝時代의 舊邑이 어떠한 形態의 物理的 變遷을 가져 왔는가 하는 類型의 것인데, 그의 可視的 變遷 樣相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겠다. 먼저 舊邑時代의 城壁, 城內的 철거와 蹟地의 環狀道路化, 그에 따른 前時代의 身分別 居住領域의 瓦解와 韓人, 日人의 새로운 居住分化領域形成, 地域 및 場所名, 公共建物名의 改稱, 舊邑市代 中心公共施들의 철거, 新築 및 轉用, 新設된 철도와 철도역, 그리고 그로부터 시발되는 新幹線道路에 舊邑貫通開設이 新幹線道路邊에形成되는 새로운 商業·業務用 都市中心의 形成, 市街化 地域의 外延擴大와 이에 따른 舊邑時代 活動據點(Node)이던 城門밖 市場의 外廓移



① 舊·新市街地混在型. ② 舊·新市街地分離立地型 ③ 新都市型

〈圖-5〉 植民都市의 3가지 類型

轉 또는 統合, 舊邑時代 宗教施設의 移轉 및 植民統治 主體의 宗教施設 新築, 때때로 新設된 新市街地의 경우 부분적으로 Baroque식의 정형적 放射形道路가 개설되어 統治主體의 권력을 시위하기도 했던것 등등이 植民時代 傳統都邑의 變遷에 등장하는 代表的 景觀 變遷 사례로 나타나며 이의 制度的 뒷받침은 1930년대 制定되었던 ‘朝鮮市街地計劃令’에 의했다. (孫視睦, 1980. 4/姜大玄, 1975)

解放以後의 독립국가는 基本的으로 資本主義의인 市民共和國를 그 基本的인 統治體制로 채택하였다. 6·25사변을 비롯한 빈번한 社會變革으로 初期에는 都市 整備나 開發에 이렇다 할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1960년대 5·16 軍事革命 이후 부터 시작된 經濟開發政策과 工業化로 인하여 급속한 都市化가 시작되었고 이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처키 위해 1962년도에 비로서 ‘都市計劃法’과 ‘建築法’이 제정되어 都市開發의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고 이에따라 본격적인 都市環境의變化가 시작된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김형만, 김철수, 1982: 109/崔秉瑄: 52). 즉 이시대를 지배했던 理念的 基調는 ‘성장지상주의’ 經濟政策이었고, 技術的 基調는 國祭主義의 ‘機能主義(Functionalism)’의 都市計劃技法이며 이들 思潮는 ‘中央集權의인 統治形態’와 결부되어 全國都市 景觀에 劃一性을 가속화 시켰다(崔秉瑄: 57).

또한 이 時代의 代表的인 環境政策中的의 하나로서 미약하나마 국부적이고 일견 정치시위적인 歷史環境保全·復元의 政策도 있어 왔었는데, 이는 “革命政府는 가까운 過去(前體制; 즉 日帝)의 景觀의 象徵要素를 파괴하나, 먼 過去의 遺産은 더욱 保全, 復元함으로써 現體制의 正統性을 歷史의 正統性에 연결·강화하려는 경향”(Lynch, 1980; 219)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80년대의 住民福祉차원의 環境保全을 포함한 環境의 質的인 향상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나 실질적인 事業施行은 시작에 불과하다(全州市, 1986).

이러한 共和國時代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物理的 景觀變遷 사항은 앞의 章에서 언급한 產業都市의 景觀特性和 거의 軌를 같이 하는데 代表的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겠다.

初期共和國時代에는 日帝植民地時代의 變化된 都市空間構造를 거의 變動없이 사용되어 왔다. 즉, 60년대까지는 日帝때 ‘都市中心’으로서의 擴張 新設되었던 「新作路」를 따라 線形的 성장을 하다가 점차 舊邑城 內部全體가 行政 業務 商業등 都心機能으로 바뀌어 갔으며, 舊邑時代 都市들을 지배하던 風水의 自然地形과 統治·宗教用 建物の Skyline은 初期產業都市의 價

值體系를 表現한다.

1960년대 以後에는 地理的 장애요인의 극복과 商工業의 발달에 따라 行政施設이 市 外廓地帶로 이전하기 시작하고 확대된 都心을 中心으로 同心圓의인 空間化的 都市成長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김형만, 김철수: 100,228). 또한 都市의 擴張에 따라 舊驛과 鐵道가 外廓地帶로 移轉됨에 따라 그 蹟地를 道路나 廣場 또는 市廳등 公共用地로 活用키로 했으며 이러한 外部移轉 公共施設들은 擴張된 都市 ‘境界’의 指標로 작용키로 하나 市域이 이를 넘어 확장될 때 이들은 확장된 시가지에서의 새로운 中心 즉 副都心의 多核構造를 형성하기도 하였다(Op. cit. 125-126). 植民地 時代에 이미 변경된 街路의 方向과 패턴은 機能的, 經濟的 位階에 의해 더욱 分化, 재편성 되었고, 主軸街路는 前時代와 같은 하나의 中心을 向한 수렴형 보다는 多核化된 여러 中心들을 連結하는 線形 또는 環狀의 體系로서의 構造를 보이게 되었다.

共和國時代 都市 諸領域의 성격은 單一한 社會的 位階表現의 性格보다는 經濟的 位階를 최우선 순위로 하면서 產業都市의 多樣한 社會構造를 반영하는 복잡한 諸領域으로 分化·成長되었다고 보인다.

이 밖에 舊邑時代 都市의 自然的 境界였던 河川(風水의 用語는 內水)을 넘어서까지 市街地가 擴張된 경우 이지역은 大部分 特定目的의 土地利用(住居團地, 流通團地, 學校)을 이루면서 都市進入 方向에서의 關門(Threshold)을 암시하기도 하며, 이러한 확장된 市域들은 舊邑內部 道路網의 정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格子形道路網(Gridiron pattern)에 의해 확산되어 갔다.

결국, 王朝時代의 간결한 單一構造의 宇宙論的 統治位階의 傳統都邑景觀은 植民時代를 거치면서, 產業都市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都市構造로의 變遷 및 植民統治의 景觀的 의사전달 매체로서의 景觀變遷을 보여 왔으며, 現代 共和國時代는 資本主義的 經濟體制, 機能, 科學技術·民主主義主義의 多元化된 가치들 그 景觀體系變遷을 통해 보여왔다고 볼 수 있으며 前產業都市의 명확한 中心, 境界, 方向, 領域體系는 새로운 要素로 치환되거나, 그 식별성이 약화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V. 結 語

前產業時代의 都市景觀은 宗教的, 統治的 가치체계에 의한 그 시대 宇宙觀 및 世界觀의 地上的 再現에 비중을 두었던 바 初期에는 圓形, 後記에는 矩形의 境

계에 의해 形成되었고 내부에는 十字形 通路와 垂直性의 中心을 가진 形態로 Jung학과의 자아(Ego)의 象徴으로서 世界宗教에 통용되는 “Mandala”의 象徴的인 原型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城郭의 해체로부터 시작되는 産業都市의 景觀은 前時代의 都市景觀特性인 명시적인 中心과 境界, 方向과 領域의 소멸내지 전환 확장으로 그 特性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前時代의 宗教的, 統治體制的, 人間的 尺度가 機能主義的, 經濟的, 科學技術的 尺度로 전환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通文化的인 前産業都市와 産業都市의 景觀特性은 우리나라의 自然과 宗教思想, 統治體制와 歷史 등에 의한 개별적 地域特性과 變遷過程의 特性을 동시에 가진것으로 사료되는 바 韓國의 前産業都市景觀의 주요한 社會文化的 要因으로는 王朝의 統治觀에서 都市造成規範인 ‘周禮考工制’와 陰陽五行說을 바탕으로 한 古代定住科學體系인 ‘風水說’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중에서도 風水說은 주로 都市立地에 관여하여 巨視的 外的景觀의 解釋과 利用에 작용하고, 周禮는 주로 微視的 都市內的景觀의 인위적 조성에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韓國의 産業都市景觀 形成의 주요한 社會文化的 要因은 世界의 일반적 산업도시들과 거의 배경을 같이 하나 韓國의 特殊한 社會變革要因, 즉 日帝強點에 의한 병참기지적 植民都市로서 나타나는 統治意圖의 物理的 表現과 解放으로 부터 시작되는 몇차례의 社會體制變革에 따르는 統治理念과 近代化와 經濟成長 중심의 都市景觀 形成을 볼 수 있다. 즉 植民地時代의 都市景觀은 그 以前의 都邑景觀 構成要素의 거의 전부분(境界, 中心, 方向, 領域 등)을 변경시킴으로서 근본적으로 재편성 하였으며 이에따라 景觀의 구체적 形態, 意味, 行爲가 植民統治意圖를 表現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共和國時代의 都市景觀은 植民時代에 변경된 物理的 景觀의 틀을 골간으로 하면서 日帝의 잔재적 景觀要素의 形態, 意味, 行爲를 새로운 民族國家의 理念에 맞추어 부분적 수정을 가했고 그의 近代의 産業都市로의 변천에 따라 機能主意的 樣式에 의해 外延 擴散되게 하였으며 이는 市民民主主義의 多元化된 價値와 開發途上國의 産業資本主義體制에 나타나는 成長第一主義, 科學技術의 進진 등 傳統的 都市固有性의 內的體系와는 이질적인 價値體系에 의해 形成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本稿에서는 韓國의 前産業都市 및 産業都市에 있어서의 景觀解釋과 그 社會文化的 形成

要因들에 대해서 通時的 變遷過程에 특히 관심을 두고서, 環境的 價値觀과 意志가 어떻게 都市景觀形成에 表現되어지고 거기서 어떠한 傾向性을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研究는 그 主題의 性格이나 예상되는 研究內容으로 보아 일련의 연속적 事例研究를 전개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本稿에서는 全研究過程에 필요한 分析體系의 設定과 예비적 개념과 지식의 정리 및 假說의 設定으로 한정했다. 차후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증적연구를 통해 韓國都邑景觀의 認知的 景觀要素들이 通時的인 社會文化的 變化要因들에 의해 어떻게 變化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場所의 構成要素들(外觀形態 · 意味 · 行爲)에 의해 어떻게 解釋될 수 있는가가 고찰되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解釋의 바탕에서 우리나라 都市들의 固有性을 保全 強化시킬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선 계속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參考文獻

東洋文獻

1. 姜大玄, 1975, 都市地理學, 教學社.
2. 康泓彬, 1986, 都市計劃史研究의 方法과 動向, 韓國都市計劃 半世紀에 관한 學術세미나,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3. 權泰俊, 1984. 8, 首都圈集中 억제와 地方都市開發의 當爲性, 都市問題誌.
4. 김형만, 김철수, 1982. 7, 韓國城郭都市의 發展과 空間패턴에 관한 연구, 大韓國土計劃學會誌 17권1호.
5. 孫植陸, 1977,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一志社.
6. 尹定燮, 1984, 都市計劃史, 建友社.
7. 李揆穆, 1984, 都市文化環境으로서의 都市景觀, 都市問題 1984年 7月號.
8. _____, 1987, 都市象徴性的 歷史的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李相求, 1984, 朝鮮中期 邑城에 관한 研究, 서울대 대학원 토목학과 석사학위 논문.
10. _____, 1986. 6, 우리나라 都市內 歷史的 空間形成의 過程과 現實, 都市問題 21卷 6號.
11. 任勝彬, 1986, 環境心理行態論, 서울晉成文化社.
12. 全州市, 1986, 全州市都市文化 環境造成計劃
13. 鄭在賞, 金學燁, 1964, 世界文化史, 서울 日新社.
14. 黃琪源, 1984, 文化景觀論 및 技法, 環境論叢 第15卷.
15. 洪慶姬, 1981, 都市地理學, 法文社.
16. 朴贊龍, 1984, 朝鮮時代 邑城定住地의 景觀構成 研

究. 韓國造景學會.

西洋文獻

1. Alexander Chistopher, 1972 Pattern Language, Oxford univ. Press.
2. Amos Rapoport, 1979,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Anthony J. Catanese and James C. Synder edit. McGraw-Hill Co.
3. Aniela Jaffe, "시각예술에 있어서 상징성" 존재의 상징(Man and His symbols), 1984, (Karl G. Jung edit. 설창환 역, 서울, 東泉社)
4. Arthur E. Smailes, 1966, The Geography of Town, Hutchinson Co. Ltd.
5. D. Appleyard, 1979, The Environment as a social symbol. Journal of APA.
6. E. Relph,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7. E. Leach, 1976, Culture and Communication, Cambridge Univ. Press.
8. E. Benevolo, 1980, The History of the city, MIT Press.
9. Lynch Kevin,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IT Press.
10. _____, 1981, a Theory of Good City form, MIT Press.
11. _____, 1980, What Time is this place, MIT Press.
12. J. B. Jackson, 1970, Public Landscape, Landscapes, Edited by Ervin H. Zube, MIT Press.
13. Jellicoe, 1970, Studies in Landscape Design Oxford Univ. Press.
14. J. W. R. Whitehand, 1981, Backroud to the Urban Morphogenetic Tradition, The Urban Landscape ; Historic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Special Publication, No.13., London, Academic Pres
15. N. 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 김광현역, 서울 산업도서출판사 1977).
16. Tuan, Yi-Fu, 1974, Topophilia, Prentice-Hall Inc
17. _____, 1977, Space and place, Univ. of Minnesota Press.